

<2013년8월 2일 금요일 진성운 선생님 명강의>

<2005년 8월 21일 주일말씀>

순리대로 행하라, 순리대로 살아가라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또 한 주일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 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또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절만 봤습니다. 기타의 말씀들은 여러분이 참고만 할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상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 신입생들, 다시 온 여러분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부모님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멋진 하루의 주일말씀을 선포하면서 멋진 하늘의 말씀을 증거 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그리고 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리대로 행하라” 혹은 “순리대로 살아가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

“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줄 테니까.”

이만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다. 더 잘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30분 동안 하면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성인들이나 큰 성자들, 메시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도 잘 모릅니다. 한 30분 동안 말씀하게 되면 아마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한 마디만 해도 알아듣겠는데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해준다는 말을 알겠는데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고 이유 먼저 달려고 하지 말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너, 모든 일을 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구하라’는 말씀인가 하고 알아들었습니까? 그 말도 그 말인데 더 쉽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이 땅에서 역사를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바 메시아를 믿으면 그곳이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 2의 하나님의 나라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먼저 하라. 거기에 먼저 신경 써라. 그것이 먼저 할 일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다보면 내 일은 어떻게 하나’ 흔히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상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못 다 한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 생활로 나타나면서 내가 은밀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

온 세계 각 나라에서는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합니다. 지금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위해서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역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일 해주어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 주어라. 네 일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주어라.”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종과 주인이 있는데 종에게, “네 일 먼저 하지 말고 주인이 원하는 일 먼저 하여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 사이에도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대개 남자가 주체인데 “대상이 자기 원하는 일 먼저 하지 말고 주체가 원하는 일 먼저 하라. 그러면 더 해 주리라.” 이런 입장입니다.

나부터도 누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원하는 것을 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이런 건도 있더라. 이런 사건도 있더라” 하며 성서를 보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대언 할 것입니다.

“더 해 주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메시아로서 세상에 와보니까 모두 일을 거꾸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에 얻을 것 먼저 사 나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 먼저 사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둥을 세우려면 주춧돌을 먼저 사야 됩니다. 다음에는 나무를 사 날라야 됩니다. 그리고 벽 만들 것을 사 날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대들보를 사 나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뚜껑을 사 날라야 됩니다. 뚜껑은 항상 모든 것을 만들고 나서 늦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순서 있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 먼저 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씻고 닦고, 그리고 기도 먼저 하며 하나님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의를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오늘 살 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순서 있게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서를 보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해 줄 테니까.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더 해 줄 테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말씀을 또 하실 것이 있는가 하고 계속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단상에 올라와서 신약을 다 읽어봤는데 없었습니다. 역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하루 일과가 순서 있게 진행되어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순서 있게 일을 하게 되면 많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 땀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해도 일을 많이 못합니다. 이것을 모두 순리적으로 해봤을 것입니다. 순서 있게 할 때 순리라고 합니다.

“순서 있게 하는 것이 순리이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도록 하라.”

그래야 되겠지요?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반드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먼저 할 것을 먼저 못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그것을 싹 뜯어고쳐야 되겠습니다. 안 고치면 안됩니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인생을 힘들게 살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일일 코치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시 받는다고 계속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아서 지금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의 계시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 것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 잘된다.” 했습니다.

“무조건 운전만 하지 말고 먼저 차를 점검하라. 나사가 빠졌나, 기름이 있는가 점검하라.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운전수 포켓에 있는지 점검하라.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엔진에 시동을 걸어라. 밟자. 떠나자.” 이와 같이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할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거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일을 먼저 한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육의 일이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먼저’ 하면 다르게 순서가 갑니다. 하나님 앞에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먼저 할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상을 본다, 신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신령한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해서 신령합니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먼저 안 사는 것은 신령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신령한 것을 따질 때 무엇을 따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주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서 계속 신령한 영상을 보고, 영계를 보는 이런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철통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오히려 세상에 치우쳐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병 낫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모두 희망과 소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해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견본자로서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무릎 탁탁 꿇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절대 대답이 없으실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다른 방법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자기에게 은은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육신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나에게 심부름시킬 것이 있으면 시키십시오. 나에게 어떤 할 말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 뜻대로 먼저 사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바로 그것 속에 자기 인생 길의 일도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속에 자기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회 한다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할 것이 있습니까? 목회만 잘 해보십시오. 수백 명 수천 명 불어나면 먹고살고 생활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그 속에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치우쳐 사는 것을 뒤집어엎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위해 사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먼저 근본을 깨달아라. 그것이 순서이다. 육적인 일을 먼저 하면 절대 안 된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하도록 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꼭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서가 되어서 잘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사람을 다룰 때에도 항상 말씀을 먼저 듣게 만들고, 신앙의 뿌리가 서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도 주고 주권도 주고, 그리고 벼슬도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구하라.” 이 속에 어떻게 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먼저 신앙의 근본을 깨닫도록 만들라. 먼저 진리를 전해주도록 하라. 먼저 하나님의 사정을 가르쳐주도록 하라.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온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그러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선생님이 오늘 이 주에 선포한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해 주리라.”입니다.

그런데 육의 일을 먼저 구하고 육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구요? 영상이 났는데 이름을 한번 불러주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구요?

한국 인천 중고등부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영상으로 만들어 선생님께 보내준 것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 인천 전지역 중고등부가 모였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진리의 신앙의 뿌리가 먼저 박혀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더 해 줘야 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복을 줘도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그 복을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훈련하라. 그러면 충을 주겠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씻고 닦자. 그리고 밥 먹자.”

“새벽기도 먼저 하자.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리고 나와서 먹고 즐기자.” 이런 말씀이 금주의 말씀으로 진행될 말씀입니다.

온 지구촌에 있는 어느 민족, 세계 각 나라, 각종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천륜의 법칙이요, 원리요, 이치요, 역사의 법칙의 순서입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급했어도 종의 시대로 먼저 역사를 해왔고, 아무리 급해도 그 다음에 아들 시대의 역사를 해왔고, 그 후에야 애인시대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듯이 역사도 순리적으로 해오셨습니다.

우리도 순리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순리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래야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한 주일동안 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순리적으로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바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안 고치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여러분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조건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서 있게 하도록 하라. 순리적으로 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신앙의 뿌리를 박을 때,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 뿌리를 박아 넣어줘야 됩니다. 한국을 중심 한 세계 각 나라의 10대들에게도 먼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넣어줘서 말씀이 완벽하게 들어간 다음에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넣어줘야 됩니다.

농부가 밭에서 먼저 잡초를 뽑아내고 비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잡초를 뽑아내라, 그 다음에 비료를 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퇴비를 하고 비료를

주면 잡초가 너무 크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생각, 잡 소망, 세상적인 희망들이 막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와, 좋다.’ 하고 따라옵니다. 그들에게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잡초가 있는 마음속에 그대로 자기 길로 가게 해주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한 주일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섬리나라 사람들은 먼저 자각하고 또 반성하며, 자기가 순리대로 못하는 것은 요번주의 말씀을 듣고 꼭 순리대로 순서를 잡고 제 위치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를 떠났을 때 타락인 것입니다.

“꼭 먼저 할 일을 척척 해가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귀한 말씀입니다.

선생님도 모든 순서를 보면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있는가 보고, 먼저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전부다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씀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에 적이 있으면 적을 먼저 없애고 그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한테 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12:29).

“먼저 전쟁하기 전에, 싸움을 할 수 있는데 내 힘이 얼마인가 파악도 해보고, 내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 파악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전쟁하면 안되지 않느냐. 상대의 적이 얼마나 있는가 보고, 그것을 봐가면서 전쟁하는 것이다.” 했습니다(눅14:31-32).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도록 하라! 그래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일어난 사실들입니다.

아무리 이것 먼저 하고 싶고 아무리 저것 먼저 하고 싶어도 순서 있게 꼭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할지라도, 어떠한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지라도 할 일을 먼저 순서 있게 해야 됩니다.

시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세례요한 입장의 사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 후에 메시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순서 있게 가야 문제가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역사가 먼저 진행되고 잘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역사가 잘 안 됐을 때는 이미 메시아 역사 속에서 다시금 세례요한 역사의 말씀을 전하며 순서 있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두 다 순서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

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구약의 말씀, 신약 때는 신약의 말씀, 성약 때는 성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한 주일의 말씀도 주일말씀에서부터 서서히 순서 있게 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염려, 재리에 빠져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생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세상의 학문 먼저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접해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내가 의를 행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고 신앙에 먼저 들어가 착수해서 배우고 터득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의 사상과 정신을 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펴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찌고 해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순서 있게 일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일일이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각자가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하느 목시를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군대 장관의 명령을 받을 자가 정확한 명령을 받고, 임금에게서 하인이 명령을 받고 신하가 명령을 받을 때는 정확한 명령을 받고 분명한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는 정확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정확한 목시의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순서가 바뀐 것이 있으면 다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아, 이것 먼저 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계약 먼저 하면 안되겠다. 땅을 사려면 이것 먼저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각자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이것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 각자 전체에게 목시를 줬으니까 온 세계 각 나라, 각 교회, 각 개인들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를 무조건 전도하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성지땅에 막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에 멋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데 어디가 멋있어요? 내가 한번 갔다오게요.”

“어디가 멋있는 곳이 있어.”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는 저기 월명동에 가봤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다고 하던데?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하던데.”

“어디가 그런 곳이 있어. 어디라고?”

“저기 대전 근처라고 하던데요...”

“분명히 알고 다녀. 다음에 가서 알아보고 와.”

그렇게 다리는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알아보고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온 다음에 그 때는 그에 해당되는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전초 먼저 하도록 하라. 아무리 급해도 전초 하라.”

선생님은 기술자 중에 기술자입니다. 말씀을 순서 있지 않게 넣어준다고 하면 너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느 때는 전화하다가도 순서가 되었다 싶으면 30개론 말씀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순서 있게 시작합니다. 순서 없이 그냥 “나 너를 구원하러 왔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 그것을 생각도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전초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 있게 전초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지만 전초를 하라. 아무리 급하지만 바나나 껍질을 까서 먹어라. 아무리 급하지만 모든 과일은 껍데기 까서 먹어라. 아무리 급하지만 씹고서 넘겨라. 급하면 반만 먹지. 반만 먹고 가면 되지 않느냐.”

씹지도 않고서 한 그릇 다 먹는 것보다 반만 먹더라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순서 있게 모든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전도하려면 기도 먼저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세우십시오.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가려면 먼저 잡을 것을 준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수영할

것도 준비하고, 수영복도 준비하고, 이런 먼저 할 것을 꼭 먼저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일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할 것을 꼭 먼저 해야 된다. 급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하고서 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살 동안뿐만 아니라 일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하도록 하라. 그게 순리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온 세계의 섭리나라가 먼저 할 것을 꼭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반드시 의로운 일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이들 위에 영원하고 영원할 지어다. 아멘.

단에 모두 바치기 전에 복을 받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오니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청춘을 드리며 모든 것을 드리옵나이다. 물질을 드리고, 전도해서 생명들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각오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도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과부가 제단을 드리던 것 같이 우리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이들이 돌리게끔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감사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줄까요.”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 좀 주세요.” 그렇게 순서를 밟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쳐졌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영원하심이 이들에게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역사하심이 온 민족과 세계 섬리의 나라에 충만하며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이 이들의 손목을 꼭 잡고 항상 이끌어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 하고 온 민족과 나라와 세계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주일말씀을 모두 마치고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순서는 여러분이 광고도 하고 해나가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8월달 월명동 수련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지도자들은 멋있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구상하고 사전에 미리 미리 알려주면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지도자들이 너무 갑자기 일들을 하니까 진땀 뻘 때가 많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교회들의 동영상도 계속 지나갔는데 내가 못 볼렀습니다. 스타박 교회, 씨담 교회, 처사라 교회, 피제이 교회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지도자들이 뛰고 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나라라서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나는 설교만 한 번 해도 땀이 줄줄 나는데, 그 열대지방에서 계속 얼마나 덥겠습니까. 물론 체질이 열대지방 체질이 되었지만 그 나라에 파송되어 선교하는 사람들, 수고가 많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선교사들은 부지런히 잘하고, 각 나라 교회들은 선교사를 선생님처럼 잘 좀 대해주고, 하나 되어서 잘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느 교회 지역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또 전화로 물어볼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 해주었다는 곳에는 내가 전화도 해줄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는 어느 한 나라에만 복음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에서 복음을 넣을 수 있는 나라들은 모두 선교사를 파견 보내면서 잘 가르쳐서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철과 가을철 부지런히 뛰고 달려서 섬리나라의 막강함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안녕, 인사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나타나면서 말씀하겠습니다.